

Korean Trail 32nd Story

낙동강 세평 하늘길 백두대간 협곡 걸으며 힐링

무지개를 땅에 꽂아도 순이 단다는 봄, 걷기 좋은 시기다. 바람은 따사롭고 어린 나뭇잎은 푸르름을 더한다. 산타마을로 유명한 분천역과 승부역 구간의 '낙동강 세평 하늘길'은 협곡과 시원스런 물길을 간직한 코스로, 매 묻지 않은 풍경이 오감을 만족시킨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경상도의 '삼수갑산'(三水甲山)으로 불리는 봉화에는 낙동정맥 트레일, 낙동강 세평 하늘길, 외씨버선길, 봉화솔숲길, 수채화길 등 자연을 벗 삼아 걷고 싶은 길이 나 있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은 분천역에서 승부역까지 12.4km로, 낙동강 상류의 협곡 비경과 청정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2.2km의 체르마트길(비동승강장~양원역)과 5.6km의 낙동강 비경길(양원역~승부역)을 포함한다.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의 들머리는 백두대간 협곡열차(V트레인)의 시발점인 봉화군 소천면 분천역이다. 여우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냇물이 갈라져 낙동강으로 흐른다고 하여 이름 붙은 분천은 한때 춘양목의 집산지였다. 관련 산업이 쇠퇴하고, 간이역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분천역은 관광전용열차인 V트레인 운행으로 활기를 되찾았고, 산타마일로 탈바꿈하며 기차 여행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체르마트길과 낙동강 비경길이 조성되면서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산과 강, 기차가 어우러진 낙동강 세평 하늘길은 분천역을 기점으로 다양한 코스를 짤 수 있는 곳이다. 분천역에서 승부역까지 걸어진 다음 열차를 타고 돌아오거나 반대로 열차를 타고 승부역에 가서 걸어올 수 있다. 양원역과 승부역 구간, 분천역과 양원역 구간만 걸을 수 있다. 분천역에서 승부역까지는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양원역에서 승부역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

알프스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체르마트길

분천역 철길을 왼편에 두고 마을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낙동강을 가로질러 건너는 비동1교와 포장도로 옆에 조성한 낙동강 금강송 오솔길을 만난다. 이어 총연장 88m, 폭 4m의 비동2교를 건너 뒤 강썩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잠시 강 너머의 풍경을 담아본다. 여린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물오른 버들강아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하다. 강변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 소리와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한다. 강썩에 세워진 안내판 '아름다운 봉화의 낙동강 그리고 가호(佳湖)'와 '영동선 개통과 마을주민들의 삶'을 지나 한적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승부역 5.9km, 배바위고개 3.3km, 분천역 4.0km'라는 이정표를 만난다. 이 지점에서 직진 방향은 분천역을 기점으로 비동마을을 거쳐 배바위고개를 넘어 승부역까지 걷는 낙동정맥 트레일 제2구간이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로 가려면 잠수교를 건너야 한다. 강을 따라 나란한 시멘트 포장길 200여m를 걷다 철교 아래를 지나 가파른 둔덕을 오르면 단선인 선로에서 열차 교행을 위한 비동승강장을 만난다. 낙동강 줄기를 가로지르는 철교 앞에는 '체르마트길 출발점 양원 2.2km'라는 나무표지판이 걸려 있다. 한국-스위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분천역과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있는 체르마트역이 지난 2013년 자매결연하고, '체르마트길'이란 이름을 붙였다.

발아래 흐르는 시원한 강줄기를 내려다보며 철교 위 가장자리에 낸 보도를 건너 뒤 터널 오른편으로 난 가파른 산길을 따라 간다. 흙길을 오르면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을 씻어주고, 언덕을 넘어서면 발아래로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하를 구불구불 돌고 돌며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가 눈앞에 들어온다. 산길을 내려서면 간이매점이 있는 용골 쉼터이다. 강물을 따라 걷다 보면 강 건너로 보이는 숲의 푸르름으로 이내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잠수교와 철교 아래를 지나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역사로 불리는 양원역에 닿는다. 양원역 대합실에서는 열차 시간뿐만 아니라 원곡 마을주민이 대합실과 승강장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던 애환을 확인할 수 있다. 양원역이란 명칭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봉화군 원곡리와 울진군 원곡리 두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간단한 식사와 먹거리를 파는 매점이 있는 양원역은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쉬었다 가는 10분 동안 잠깐 장터로 변하고, 오지의 길을 걸은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면서 활기가 넘친다.

협곡과 물길이 빚어낸 낙동강 비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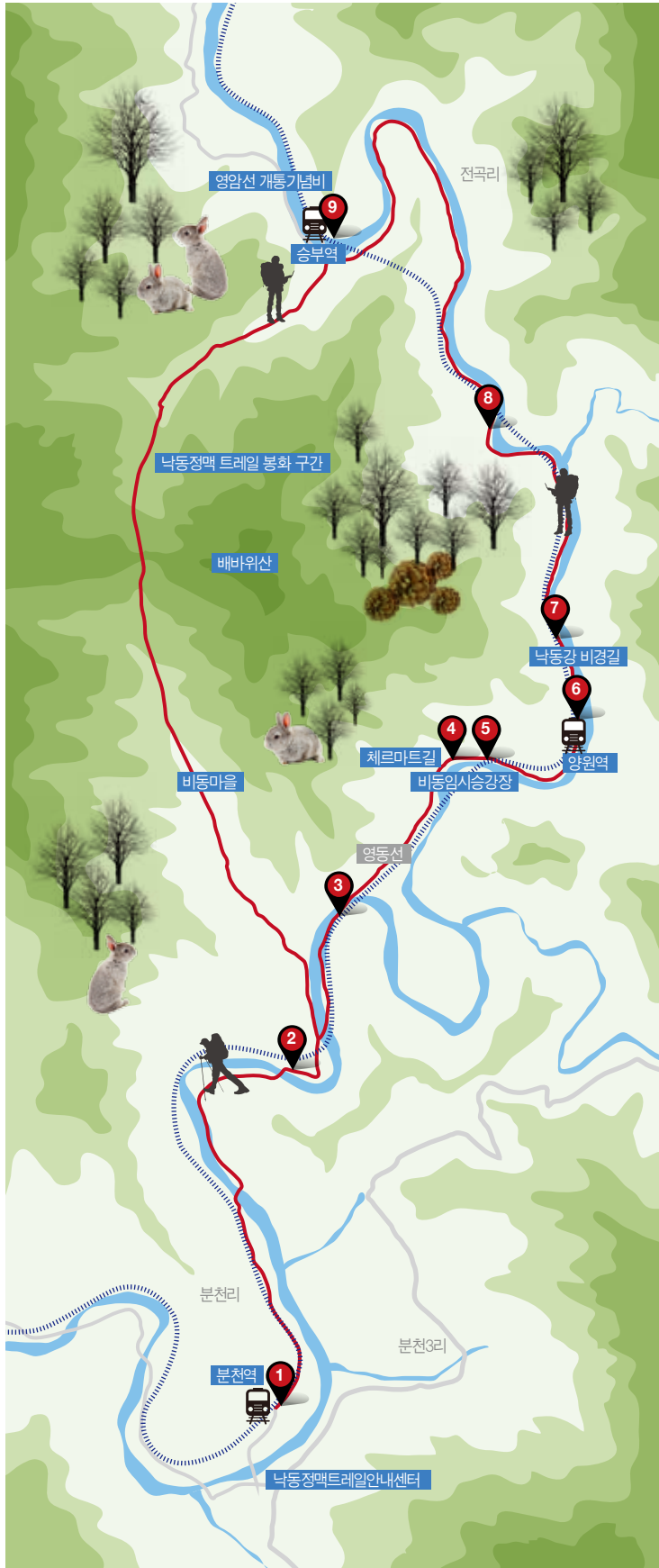
양원역에서 승부역까지는 백두대간 협곡을 따라 걷는 비경길이 이어진다. 낙동강 비경길은 오로지 두 발로 낙동강 상류의 속살을 파고드는 오지로, V 자형의 협곡 물길을 따라 영동선 열차가 달린다. 영동선 철로를 따라 난 시멘트 포장길을 걷다가 강바닥으로 내려서서 자갈길과 바윗길을 따른다. 협곡 양편의 거대한 석회암 절벽인 뺨대와 곧게 뻗은 금강송들의 멋진 자태, 굽이쳐 흐르는 강물 주위의 크고 작은 기묘한 바위에 마음을 빼앗긴다. 옥색 빛을 띠는 강물은 속이 환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다. 굽이굽이 휘어진 강을 따라 걷다 보면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철교 아래를 지나 나무계단을 오르면 협곡 절벽 가장자리로 통로를 낸 맥길이 탐방객의 눈을 흘린다. 태극물길 전망대에 서면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세와 긴 세월 동안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 터널 속으로 숨었다가 강물 위 철교로 달리는 열차가 한눈에 들어온다. 마치 한 장의 멋진 엽서 같다. 절벽 모퉁이를 돌아 출렁다리를 건너면 강바닥 길과 오솔길로 이어진다. 감상에 젖어 걷다 보면 '승부 0.3km, 양원 5.3km, 분천 6.5km'가 적힌 이정표가 반긴다. 여기서 철교 아래를 지나면 강 건너 바위를 보고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용관바위가 우뚝 솟아있고, 그 뒤쪽으로 비룡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오른편 오르막길을 오르면 승부역이고, 왼쪽 잠수교 방향은 배바위고개로 넘어가는 산길이다.



낙동정맥 트레일과 낙동강 세평 하늘길 기점인 승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오지 역이었으나 1998년 '환상선 눈꽃열차'가 운행하며 유명해졌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산과 계곡뿐인 승부역에는 '승부역은 하늘도 세평이요 꽃밭도 세평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송의 동맥이다'라는 글귀가 역사 옆 화단 바위벽에 새겨져 있다. 1962년부터 19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역무원이 써놓은 글로 승부역의 상징이 되었다. 여기서 세평은 3평에 불과할 만큼 작다는 의미다. 승부역 옆 언덕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을 새겨 넣은 '영암선 개통기념비'가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건설한 철도였던 영암선(영주~철암)은 1955년 12월 개통됐으며, 험준한 산맥을 뚫고 교량 55개소, 터널 33개소가 설치됐다. 영동선 철로에서 가장 긴 영암선 개통 기념비 뒤편으로는 투구봉 산책길이 조성돼 있다. 승부역에서 협곡열차와 순환열차,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분천역으로 회귀한다. 이때 평균 시속 30km의 느린 속도로 달리는 V트레인에 몸을 실으면 차창 밖으로 낙동강 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아울러 밤금 걸어왔던 산길과 물길이 눈과 가슴에 고스란히 와 닿는다.



1 체르마트길 기점인 비동승강장에서 철교를 건너 능선과 계곡을 따라가면 양원역이다. 2 낙동강 세평 하늘길에서는 산타마일로 유명한 분천역을 기점으로 다양한 코스를 짤 수 있다. 3 분천역과 비동승강장 사이에 있는 쉼터.



① 낙동강 세평 하늘길의 들머리인 분천역은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시발역으로 기차 여행의 명소다. 스위스의 체르마트역과 자매결연하고 산타마을로 탈바꿈해 곳곳이 촬영 명소다.



② 유유히 흐르는 강과 계곡, 좌우로 병풍처럼 펼쳐지는 험준한 산들이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산이 막히면 에도는 물길처럼 낙동강 세평 하늘길도 부드럽게 흐른다.

③ 낙동정맥(洛東正脈)의 산자락을 헤집고 흐르는 강물과 철길, 낙동강 세평 하늘길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달린다. 한반도 13정맥 중 하나인 낙동정맥은 강원도 태백시의 구룡산에서 부산광역시 다대포의 물운대에 이르는 산줄기를 말한다.



⑤ 비동승강장 앞 철교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양원 1.8km라는 이정표를 만나고, 발아래로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가 펼쳐진다.



⑦ 낙동강 세평 하늘길 구간 가운데 자연풍광이 가장 빼어난 곳은 양원역~승부역 구간이다. 험준한 산세와 굽이쳐 흐르는 옥색 계곡 등 때 묻지 않은 풍경이 오감을 만족하게 한다.



⑧ 험준한 협곡과 시원스런 물길을 간직한 낙동강 비경길은 출렁다리를 비롯해 태극물길 전망대와 거북바위, 갈대밭, 기암괴석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이어진다.



④ 낙동강 물소리를 따라 걷는 체르마트길은 비동승강장에서 양원역까지 2.2km 구간이다. 비동승강장은 열차 교행을 위한 장소다.



⑥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역사로 불리는 양원역은 1988년 마을 주민이 흙과 돌을 날라 직접 지은 간이역이다. 이전에는 외지로 나가기 위해서 분천역이나 승부역까지 기차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다고 한다.



⑨ 눈꽃열차와 협곡열차 등으로 이름난 승부역은 1990년대까지 열차 교행을 위한 간이역에 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가장 외딴곳에 자리잡은 승부역은 주변 산세도 험하지만 간이역의 한적함과 여유로움이 운치를 더한다.



Stay

구수곡 자연휴양림 금강소나무 숲에서 지친 심신 해독

경북 울진군에서 조성한 구수곡 자연휴양림은 통나무집과 황토집, 아영장 등이 잘 마련돼 있고 수령 200년 이상의 금강송이 군락지를 이뤄 산림욕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특히 울진 여행의 베이스캠프로 삼을 만하다.



1, 2, 3, 4 숲속의 집은 금강송으로 지어져 숲향이 그윽한 게 특징이다. 2인실인 통나무집 잣나무 1·2호는 방 1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

울진읍과 덕구온천을 잇는 917번 지방도로 변에 위치한 구수곡 자연휴양림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끄는 것은 숲속의 집을 병풍처럼 둘러싼 아름드리 금강소나무 숲이다. 울진군 전체 면적의 85%가 임야이고 그 중 50% 이상을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주로 분포하는 한국 토종 소나무인 금강송이 가득하다. 금강송은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으며 자라는데 나이테가 촘촘하고 뒤틀림이 적어 예부터 궁궐이나 사찰의 대들보로 사용됐다. 금강송은 목재로서 가치와 함께 산림욕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까지 제공한다. 금강송이 뿜어내는 향을 맡으며 숲길을 걷거나, 숲속의 집에 짐을 푸는 순간부터 치유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구수곡 자연휴양림은 통나무집과 황토집, 아영장, 물놀이장, 피크닉장, 야생화단지, 울진금강송문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야생화와 녹색의 소나무, 계곡, 통나무 집과 어울려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숲속의 집은 금강소나무 숲에 있으며, 객실마다 고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다. 2인실인 통나무집 잣나무 1·2호는 방 1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고, 6인실인 참나무 1·2·3·4호는 방 2개, 거실, 테라스, 다락을 갖춘 통나무집이다. 옛집은 방 2개와 거실을 갖춘 황토집으로, 어릴 적 시골집에서 지내던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해준다.

3천500㎡ 규모 아영장에는 취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데크는 널찍하고 데크와 데크 간격도 넉넉하다. 아영장 바로 옆에는 계곡을 막아서 만든 물놀이장이 있어 계곡의 정취를 즐기며 물놀이를 할 수 있다. ‘참나무’와 ‘금강송’을 제외한 숙소와 아영장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돼 차를 타고 들어가 짐을 부릴 수 없다.

응봉산(998.5m) 자락의 구수곡(九水谷)은 물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계곡을 따라 산책과 등산을 할 수 있다. 18개의 크고 작은 소(沼)와 폭포가 있고, 2개의 처녀계곡 끝에는 각각 웅녀폭포와 용소폭포가 시원스런 풍경을 뽐낸다. 참나무가 소나무를 끌어안은 듯한 형상의 ‘사랑나무’에는 옛날 부부금실이 좋지 않은 정 참봉 내외가 치성을 드렸더니 금실이 좋아 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휴양림에서 구수곡 계곡을 거쳐 사랑나무와 웅녀폭포를 다녀오는 코스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산림욕을 만끽하고 원시 그대로의 자연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휴양림에서 사랑나무를 거쳐 휴양림으로 돌아오는 코스는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인근에 전국 유일의 자연용출 온천인 덕구온천과 해수욕장이 있어 산림욕과 온천욕, 해수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



5, 6 구수곡 자연휴양림은 통나무집과 황토집, 아영장과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영장의 데크는 널찍하고 데크와 데크 간격도 넉넉하다.

Tip

이용 방법과 요금

객실 체크인 시간은 성수기(7월 16일~8월 15일)와 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오후 3시이며, 비수기와 주중은 오후 2시이다. 체크아웃 시간은 1년 내내 다음날 정오다. 모든 객실에 TV·냉장고·에어컨이 구비돼 있고, 침구·식기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정원에 맞춰져 있다. 휴양림 인터넷 예약은 전월 1일 0시부터 가능하다. 객실 요금은 성수기와 주말, 비수기와 주중이 다르다. 27㎡(잣나무)는 5만원/4만원(성수기·주말/비수기 평일), 34㎡(느티나무)는 8만원/6만원, 48㎡(낙엽송·황토집)는 10만원/8만원, 53㎡(참나무)는 11만원/9만원, 68㎡(금강송)는 13만원/11만원이다. 숲속 교육장 1층에 위치한 57㎡ 원룸은 12인실로 10만원/8만원이다.

문의

구수곡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 054-783-2241

가는 길

